

관세청·세계관세기구(WCO)·한양대, 제3차 데이터 분석 장학프로그램 성공적 마무리

- 12개국 세관 직원 12명, 3개월간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한국의 데이터 분석 기술 학습
- 바쿠다(BACUDA) 프로젝트 통해 데이터 기반 관세행정 확산 선도

관세청은 세계관세기구(WCO), 한양대학교와 협력하여 공동 운영한 「제3차 데이터분석 장학 프로그램」이 3개월(1.26.~4.24.)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오는 24일(금) 종료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한국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187개 회원국의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제안한 ‘바쿠다(BACUDA, Band of Customs Data Analys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 우리말 ‘바쿠다’의 영문 표기로, 관세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저가신고 적발모델, 품목분류 예측모델) 개발과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2019년부터 추진 중

바쿠다 프로젝트는 한국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케이(K)-관세행정의 대표 사례로, 위험관리 분석 모델을 개발하여 세계관세기구(WCO)에 오픈소스로 제공한 바 있다. 세관행정에서 위험관리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핵심분야이나, 시간과 비용 등의 제약으로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국내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석 모델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총 23개국이 바쿠다 알고리즘을 현재 활용 중이며, 12개국은 도입 예정이라고 응답(세계관세기구(WCO) 설문조사, '24.12.)

이번 과정에는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 공모를 통해 선발된 12개국* 12명의 세관 공무원이 참여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프로그래밍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몰디브,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즈베키스탄, 잠비아, 케냐, 투르크메니스탄, 피지

또한 교육생들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 현장 견학을 통해 우리나라 관세행정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과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한식 쿠킹클래스)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그간 본 프로그램 수료생들은 자국의 통관 및 위험관리 분야에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업무 효율성과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세계관세기구(WCO) 데이터 분석 분야 인증교관이 배출되는 등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오늘 한양대학교에서 개최된 폐회식에서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한민국장은 교육생들의 과정 수료를 축하하며, “이번 교육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각국의 환경에 맞게 접목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과정 중 한식 쿠킹클래스에서 교육생들이 직접 비빔밥을 만든 경험을 언급하며,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져 하나의 음식이 완성되듯, 각국의 다양한 경험과 데이터 분석 역량이 결합되어 더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임주연 (042-481-3210)
		담당자	사무관	강홍익 (042-481-3215)

